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라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학교급식 전면 실시 예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져

지난 9월 5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강당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비롯한 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교조 초등지회, 대전 대덕연구단지 노동조합연합)와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에 동참하는 지방의원들 주축로 학교급식 실시 제도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부는 97년부터 초등학교의 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신 학부

모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후원회비 모금과정에서 강제징수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교사, 학교 사이에 끊임없이 말썽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으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확정해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내부부의 '지방비를 교육재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운용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내부부는 유성구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책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운동을 추

진해 왔던 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유성구의 결정을 지지하며 내부부의 제재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을 96년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각 지역 지방의원들과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학교급식후원을 위한 조례제정 및 청원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95 여름연수 임시대의원 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95 여름연수 및 임시대의원대회가 8월 10, 11일 양일간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박인옥 인천지부장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연수는 학부모의 학교참여-학교운영위원회 라는 주제로 윤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관악 동작 서초지회, 익산(이리)지회와 창립지회인 청주지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상반기평가 및 하반기사업 계획,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과 서울지부의 통합결정과 새로이 선출된 임원 오성숙(전국 사무처장), 장은숙(전국 문화국장)씨가 인준되기도 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이 나왔으나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매월 중집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의 자녀들은 고궁(종묘와 덕수궁) 역사기행 시간을 가졌다.



학교급식 실시 제도화를 위한 기자회견—7개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을 96년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공동기자회견 장면)

주요기사	3면 여름연수보고
	4면 교육위원회
	5면 자녀 성교육, 박물관
	7면 부모역할 훈련

축하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창립대회

아이를 학교와 선생님께 맡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시: 1995년 9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노원구민회관

문의: 634-6508



사 설

바로 서야 할 교육위원회

지방자치제 선거가 끝나고 언제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뇌물 수수와 비리문제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맡는 교육위원이라면, 마땅히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정치권에 현금을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 불거져 나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본회는 작년 9월,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이종간선으로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현행 교육자치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위원들이 주민들의 관심속에서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서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인 단위학교 안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정착을 위한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교육자치제에 관한 개혁안을 보면, 그간 문제점으로 등장했던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간에 권한 및 역할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어 왔던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문제가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위원회가 현실적 절충형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인사와 시·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혼합, 구성되는 어중간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교육위원회 후보를 추천하게 될지도 미지수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이 진정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민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모가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학부모의 주장과 입장이 교육문제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의결기구화되지 못하고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있거나 그 전면적 시행 역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또 다시 98년 이후로 자꾸만 늦춰지고 있어 당국이 진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정착을 바라고 있는지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학부모들로부터 조달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재정조달에 동참할 수 있는 부유층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만이 보장될 소지를 안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부유층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이 어느 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적 이해를 대변하게 될지도 분명한 만큼 앞으로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근간을 두는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정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제, 학교운영위원회 등 중요한 교육개혁 정책들이 그 기본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교육계인사들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어 절충형으로 제시되고 시행된다면, 이미 교육개혁안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진정한 교육개혁을 반쯤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교육자치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의 교육위원 선출권 뿐만 아니라, 운영위 대표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하여 피선거권 역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국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교 명칭 초등학교로 변경

교육부는 8월 11일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96년 2월까지 전국 국민학교의 모든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학교직인을 비롯 생활기록부 양식 등에 적혀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국민학교의 명칭은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 교육을 상징했던 '폴크스슐레'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난 41년 황국신민양성을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공포된 칙령 제 148호 국민학교령에 비롯됐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 도입

국가가 초·중·고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목표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학생들을 평가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는 미국의 전국교육발전평가(NAEP)나 영국의 국가교육평가(NCP)처럼 국가가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학업성취 목표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과 작

품제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주체는 교육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과정 평가위원회(가칭)를 두어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전 교과목에 걸쳐 실시키로 하되 시행 첫해에는 국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빠른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 학생들 대도시 전학 희망

경기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대도시 학교로 전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초·중·고교생 2천7백79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대도시 지역 학생과 비교해 유·불리를 묻는 질문에 학생 25.1%가 매우 불리, 46.5%는 다소 불리하다고 답한 반면 차이가 없다고 답한 학생은 21.3%였고, 7.1%만이 유리하다고 답해 학생들이 지역편차를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상급학교 진학 때 대도시 학교에 비해 불리한 이유로는 진학관련정보 부족 22.6%, 동료 학생의 진학열기 부족으로 경쟁의식을 갖지 못함 21.6%, 등·하교 시간, 독서실 등 환경열악 18.8%, 학교쪽의 진학지도력 부족 14.2%, 학원 또는 과외수업 불가능 10.5%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불리하다고 답한 학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대도시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1%만이 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적 상위 1%이내만 월반 허용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속진 월반제 대상 학생을 학교별로 설치되는 평가위원회(가칭)가 학업성적 상위 1% 이내의 학생 중 적성·인성·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속진 월반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과목별 평가시험을 치를 방침이었으나 과외과열을 우려, 속진 월반 대상을 성적 상위 1%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은

- ◎ 교육의 한 주체로서 바로 서고자 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 ◎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커나갈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장섭니다.
- ◎ 선생님께 돈봉투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가집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번지 당일빌딩 301호
☎: 675-9068, 634-6508 FAX: 634-4359

'95 여름 연수 임시 대의원대회

지난 8월 10일 11일 '95 여름연수 및 임시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하반기 활동을 지부, 지회 단위에서 자체 역량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의 중점방향을 설정하였다. 또 교육개혁안 발표로 인해 학부모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학부모회의 최우선 과제로 나서게 되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95년 상반기 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참관사업과 고교입시부활반대운동, 지방자치제 참여, 연대사업을 결정했었다.

전체적으로는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펼쳐나갔으나 교육위원회 참관사업은 교육위원회의 임기만료시기로 참관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지방자치제 참여는 몇 지역에서 직접 후보로 참여하거나 후보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5.31 교육개혁이라는 흐름속에서 학부모회가 교육단체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타단체들과 연대사업이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학부모회의 하반기 사업으로는 전국사업을 힘차게 펼쳐 나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후에는 후속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회를 선전,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틀 및 제반활동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도록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회 안에 학교참여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참여에 대한 경험담 등을 나누며 시정책을 모색하는 간담회, 후속모임 등을 꾸린다.

이밖에 학부모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서기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과 서울지부와의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문화국을 중심으로 체육대회, 역사기행, 회원간담회 등이 마련된다.

하반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도표와 같이 1)모니터 교육, 상담원 교육, 자문위원회 연속강좌 2)학교운영위원회 준비-학교참여위원회 3)문화부사업-박물관과 전시장을 찾아다니는 문화기행이 큰 중심 틀거리가 된다.

하반기 사업의 특징은 회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이러한 교육을 통한 학부모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높인다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끝마친 후에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후속작업과 소모임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거나 학부모회 행사에 참여했던 한사람, 한사람을 이후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김은주 기자)



하반기 사업계획

- 8월 상반기 연수
교육강좌 준비
- 9월 급식설문지 정리
정책위원회 결성 - 윤철경교수
시민기금지원 - 프로젝트 제출
창립기념일 행사 - 신구회원 간담회, 윤구병교수 강연, 신입회원 환영회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토요문화기행'
(박물관, 전시회장을 중심으로 매달 가족문화기행)
- 10월 17일부터 모니터 교육시작(매주 화, 목 10회교육)
10월 14일(토) - 기금마련 일일주점
- 11월 11월 1일부터 상담원 교육시작(매주 월, 수 10회교육)
자문위원회 연속강좌 1회(자연기행, 역사기행)
임원 교육 - 각지회임원 대상으로 심도있는 교육(미정)
- 12월 자문위원회 연속강좌 2회(교육관련)
각지부 지회 송년회, 연하장 발송
하반기 사업평가 및 대의원대회 준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비디오 11편

(「영상모임 아이들」추천 비디오)

분야	제 목	내 용
동·식물	NHK 동물의 왕국 1집 MBC 자연다큐멘터리 도리어몽의 자연여행-식물나라	북태평양 흑고래의 상태 노루, 멧돼지 등 한국의 야생동물 아이들에게 친숙한 식물소개
과학	삼총사 과학여행⑤ 이것이 지구다-살아있는 화성	석유, 석탄 등 에너지원을 만화 주인공이 소개 우주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보는 지구의 상태
역사	대명박물관⑥ 미래로의 유산-잃어버린 시간	마야, 잉카문명 소개 폐허가 된 교대 유적지 탐사
예술	짐 캄볼의 어린이클래식-피터와 늑대	인형극을 통한 클래식 음악감상
만화	옛날 옛적에 훈 꼭두 장군 스노우맨	전래동화, 창작동화 대상없이 음악으로 눈 사람과 동심의 세계 표현
영화	오즈의 마법사, 사랑의 하모니 날으는 요술침대	집찾아가는 도로시의 친구 이야기

◇상담원 모니터 교육강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95년 10월, 11월부터 모니터 교육과 상담원 교육강좌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제목과 강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강좌내용도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학부모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상담원 교육

일시: 11월1일부터 매주 월, 화

1. 한국의 교육현실과 학부모
2. 아이들의 학교생활
3. 대화기술-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문제
4. 여성문제 - 학부모로서의 여성문제
5. 청소년의 심리 및 청소년 문화
6. 교육법에 대하여 - 교육권, 학생인권,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 인권 등
7. 상담자의 자세 - 기술적인 문제
8. 청소년의 병적 심리
9. 심리상담
10. 상담실습

모니터 교육

일시: 10월 17일부터 매주 화, 목

장소: 방배동 청소년학회

1. 현대사회와 대중매체
2. 한국 방송의 구조적 이해
3. 교육방송의 실상과 발전과제
4. 케이블 TV의 이해와 교육 채널
5. 방송보도론 - 뉴스제작구조의 이해와 모니터 방법론
6. 신문 제작 구조의 이해와 모니터 실습
7. 방송제작구조의 이해와 모니터 실습
8. 언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만평

이숙자



◆ 5.31 교육 개혁안 — ③

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어 그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이다. 교육사업도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제도적장치가 다른 교육위원회 제도이다.

교육자치는 미·군정기에 교육행정제도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후 여러 번의 중단과 부활을 겪어왔다. 1991년 3월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비로소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기 교육위원이 95년 9월1일까지 임기를 마쳤고 지난 달 말 선출된 제2기 교육위원은 현 정권 임기 후인 98년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개정을 주장해온 지방교육자치법은 제2기 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해야했으나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자치 개정안을 제출조차 못한 채 교육위원 선출을 하게 돼 교육자치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교육자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개위 교육자치 개혁방안

현행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에 회부할 조례 및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는 위임형 의결기관의 역할에 그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결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개위는 이에 따라 교육위를 교육 학예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는 절충식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위원은 올 2학기 초부터 시범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한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시·도의원 가운데 일부가 참여해 교육위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 의원의 참여비율은 지자체의 중등교원 봉급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7~26명으로 돼 있는 교육위원 정수는 시·도 규모에 따라 7~15명으로 낮추고, 교육전문가의 교육위원 자격은 현행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에서 △국공립 사립교원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교육행정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또는 각 경력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자로 대폭 확대했다. 교육경력자의 교육위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현직교원은 출마할 수 없도록 했던 현행기준을 초·중등교사와 사회교육기관 전문요원 경력자 등까지 확대하고 있다.

교육감의 선출도 현행 비등

특 비추천 방식에서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가칭)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해 교육위가 선출하도록 하되, 교육감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의장, 교육위의장, 교육부장관이 각각 1명을 지명하고 도지사가 2명을 지명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외국의 교육자치제

·미 국

교육행정적 권

한은 주정부가 가지고 있어 50개 주가 역사적 배경과 지역사정,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주의 교육제도를 조직 운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주교육위원회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학교재원의 관리 및 투자, 주 교육법의 적용, 교육과정의 설정 및 개선, 교사자격증 발급에서 교원인사, 교육정보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다루며 사소한 교육적 사항은 지방학구의 교육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주 교육위원의 선임방식도 주마다 다르다. 공선에 의한 경우,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 주 정부직원이 겸하는 것, 등이다. 지방학구에서는 공선제와 임명제가 있고 지방학구의 교육장은 학구의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된다.

미국의 교육자치제는 주 뿐 아니라 주내의 지방수준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잘 실천되나 교육위원들의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의 교육적 요구보다는 중·상층 사람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경향이 있으나 반면 민중에 의한 교육통제를 요구하는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 본

일본에서의 전후 교육정책의 기본은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1948년 교육위원회법 이 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교육이 부당한 정치지배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지방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선출도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교육

자치제실시는 1956년 이후 퇴색하여 1956년에 종전의 교육위원회법은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교육위원회 설치의 3대 목표인 지방분권화, 지역민의 교육행정에의 직접참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등에 반동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흐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금도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의 합의를 얻어 지방정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육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인 교육장과 그가 임명한 전문직 및 사무직원의 보좌를 받는다.

80년대에 이르러는 교육개혁이 신국가주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조봉호 기자)

인터뷰

장은숙 문화국장을 찾아



당산동 학부모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장은숙씨를 만났다. 자그만 체구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95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서울지부가 전국학부모회로 흡수되며 서울지부 문화부도 전국문화국으로 자리바꿈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은숙씨

는 전국 문화국장으로 각 지회 문화부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학부모회에 관심 있는 회원들도 문화국에서 하는 일이 무언지 잘 모르죠.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일, 어린이날, 스승의날 행사등이 문화국의 중요한 일입니다.” 장은숙씨는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이 임원 중심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일반 회원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회원과 신입 회원이 자주 만나 서먹함을 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문화국의 일입니다. 동시에 학부모회 전체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구요” 장은숙씨

는 회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문화국 하반기 사업중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실마리가 될만한 행사가 바로 ‘토요 어린이 문화기행’이라고 소개했다.

9월 30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과 함께 박물관, 전시회 관람등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을 한번의 행사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모임을 통해 어린이, 학부모 모두 함께 공부하는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될것이라 한다.

“토요 어린이 문화기행은 기존 회원간의 만남은 물론 신입 회원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리

라 생각합니다. 하반기 문화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장은숙씨의 조용조용한 말 속에 신뢰감이 느껴졌다.

대학때 연극부에서 활동했다는 장은숙씨는 어린이 연극에도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문화국 일이 벅차 할 수 없지만 연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줄수 있는게 많은 만큼 앞으로 시간만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

장은숙씨의 학부모회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그 가입 동기에서도 잘 보인다.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닐때 신문을 통해 참교육 학부모회를 알게 되었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회원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같은 학부모끼리 만남의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 장은숙씨도 학부모회 2학년이 된

셈이다. 문화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이라고 했다.

“하반기 사업에 10월부터 시작되는 모니터 교육과 상담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5살 남매를 둔 장은숙씨는 학부모회일로 외출할 때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2시 30분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며 인터뷰 중에도 시계를 보는 모습에서 아이들 엄마의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학부모회 발전을 위해서는 장은숙씨처럼 조용히 일하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송주비 기자)

◆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2)

가정은 자연스러운 성교육의 장



윤 양 현(여성학자)

성교육 단계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그들 남녀가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근본원인들을 연구해 보면 어린시절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순기-항문기-남근기 등으로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인간발달 단계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이론 중의 하나로서, 한 인간의 가치관이나 판단력, 행위 수준등의 확립이 이미 학령 전의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2세경의 항문기 단계에서 배변에 강요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등 긍정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이는 씹씹이가 매우 해프거나 혹은 수전노 등의 이상한 도착증세를 보이는 어른이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며 들리는 것들을 무비관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유아기 단계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인식은 이미 기초공사를 마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면이 허락하는대로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성의 몸에 대한 환상이나 호기심 없애기

다섯살 때 옆집의 여섯살 짜리 누나와 매우 친하게 놀며 지냈다. 엄마가 시장 가시고 우리는 둘이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싫증이 나자 누나는 의

사놀이를 하자고 했다. 우리 서로가 환자도 되고 의사도 되면서 옷을 훌쩍 벗고 서로의 성기를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만져보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의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3년 남학생의 최초의 성경험담입니다. 부모가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사건이었지만 이성의 몸이 자기 몸과 다르다는 것에 잔뜩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로서는 지금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때 어른들의 성행위에 대한 시각적 경험(비디오 등을 통해)이 있는 아이라면 서슴없이 성행위까지를 재미있는 놀이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장한 후 과거에 그러한 놀이를 했던 자신을 부정적으로 - 끼가 있다든지 더럽혀진 몸이라든지 등으로 - 인식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살아가는 앞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게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얼굴을 알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남녀의 몸이 다르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령 전까지 아빠는 딸과 엄마는 아들과(또는 가족이 함께)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겠지요.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어색하고 의도적인 태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적 태도일 터입니다. 자연스러운 태도는 고정관념을 극복한 열린 사고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 2) 자기몸의 주인 되기
- 3) 자기 성에 금지 갖기
- 4) 자기 마음을 표현 할 권리 갖기
- 5) 남녀의 평등한 역할 익히기

초등학교 사춘기 성교육 과정

- 1) 자기 몸에 금지 갖기
- 2) 2차성징
- 3)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차이
- 4) 사랑 개념, 결혼 의미
- 5)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요?
- 6) 자위행위
- 7)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 박물관 순례-(7) 한국잡지 박물관

다시 보는 잡지역사 100년 - 문화발전의 동반자

현대 사회는 흔히 정보사회라고 얘기한다. 빠른 정보를 받아 들이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보의 중요성은 개인간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런 정보 전달의 역할의 한부분을 잡지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잡지의 역사는 100년에 이르고 있다. 한국잡지협회는 한세기에 이르는 잡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992년 12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한국잡지협회내에 잡지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이 박물관은 회기본류 창간호 574점, 근대 창간호 2,500점, 잡지관련 참고자료64점, 전집잡지류 1,561점 등 4,700여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전시된 잡지들은 9기로 나누어져 전시되고 있는데, 한국 잡지의 초창기, 무단정치시대, 문화정치포방시대, 친일언론강요시대, 해방초기, 잡지의 새출발시대, 잡지전문시대, 6.29이후언론자유화시대, 언론개방및 정보화시대로 시대별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는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대조선독립협회보>로 1896년 11월 30

일에 창간되어 1897년 8월15일 통권18호로 폐간되었다. 이 잡지는 국관, 22면에 반월간으로 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그 날은 육당 최남선이 <소년>이란 잡지를 창간했던 날이다.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한 것은 잡지 <소년>이 근대적 조합잡지의 효시이며, 청소년의 의식계몽에 앞장 섰고, 서구문화의 도입, 언론일치의 신문체 개척, 그리고 <해에게서 소년에게>등의 신체시를 창작한 점으로 잡지사에 공이 큰 까닭이다.

무단정치시대에는 언론암흑시대로 탄압이 심했다. 50여종의 국문잡지가 발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청춘>, <창조>, <학지광> 등을 들 수 있다. 탄압으로 모든 잡지는 단명하였고, 주로 종교잡지가 성행했다.

문화표방시대에 발간된 잡지는 162종류가 넘는다. <개벽>, <백조>, <어린이>, <극예술>, <신여성>등이란 잡지가 있었다. 이 시기는 3.1운동의 반발에 일제가 탄압의 고삐를 늦춘 시기이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만들어진 잡지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천도교에서 발간한 <개벽>은 한국 신문지법에 의한 최초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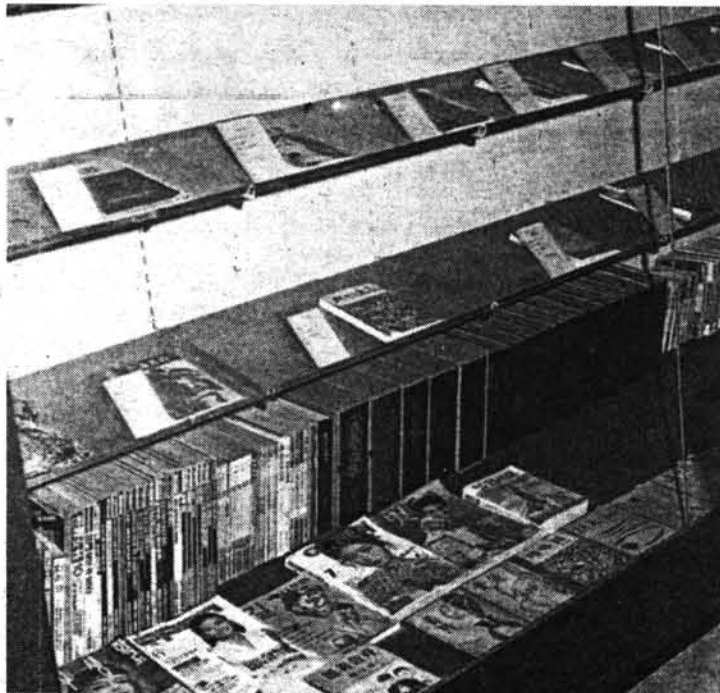
언론지이며, 당시에 최대의 탄압을 받은 잡지로 기록되어 있다.

친일 언론강요시대에는 민족의 자존심마저 버려야했던 어두운 시기였다. 모든 언론은 친일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족주의를 부르짖던 잡지는 사라지고 <국민문학>, <내선일체>, <태양>등 일제의 만행까지 찬양하고 나서는 친일잡지가 나왔다. 우리나라 잡지사에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시기이다.

해방초기에는 좌우대립의 혼란시기로 두 쪽의 연이은 충돌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익잡지가 등장하였고,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하게 되어 116여가지의 잡지가 쏟아져 나왔다.

6.25이후인 잡지의 새출발시대에는 잡지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면수도 증강되었으며, 용지도 질이 향상되었다. 1979년까지 500여종의 잡지가 창간되었다. 어린이 잡지인 <새벗>, 지성인의 생각을 대변한 <사상계>, <현대문학>, <여원>, <신동아>, <주부생활>, <창작과 비평> 등 다양한 장르의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잡지 전문화시대인 1980년 11월부터 87년 5월까지 창간된 잡지가 130여종이지만, 언론탄압으로 등록취소가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잡지는 더욱 전문화되어갔다.

6.29선언이후 잡지 발행이 크게 늘어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500여종이 넘고 있다.

전시된 지나간 잡지와 최근에 나온 잡지를 비교해 볼때 제일 눈에 띄이는 변화는 책의 판형과 표지의 디자인과 다양해진 색의 사용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중국 조선족이 발행하는 <도라지>, <은하수>, <문학과 예술>등의 잡지를

볼 수 있어, 동포들의 우리말 사랑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잡지 박물관은 잡지역사의 발자취를 수집 연구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잡지의 발전에 앞장을 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휴관한다. 관람 소요시간은1시간내외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주변의 볼거리는 국립 박물관, 비원, 조계사, 경복궁등이 있다.

<김해순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제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두밀리에서의 이틀

8월19일 아침, 짐을 챙기며 창 밖으로 자꾸 눈이 갔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오락가락 쉽게 그치질 않았다. 그동안 그렇게 덥더니...

다섯가족(아이들 캠프 후속모임에서 만들어진 가족 모임) 19명이 한달 전부터 기대하던 두밀분교 가족 캠프였다. 내리는 비에 관계 없이 모두 출발했다. '두밀리 자연학교' 두밀 분교 위치를 알리는 길 옆의 팻말이 빗 속에 쓸쓸했다.

작년 가을 운동회 때의 복적이던 학교 모습과 많이 달랐다. 분명 날씨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일 듯 하던 하늘은 생각을 달리 했는지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졌다.

주최 측은 운동장에서 치르기도 한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두밀분교를 마음에 그리며 빗 속을 달려온 가족들이 하나, 둘 교실 안에 텐트를 쳤다. 어두워질 무렵 교실마다 텐트로 가득 찼다.

학교는 전기도 끊기고 물도 없었다. 교실 천장에서는 비가 섰다. 코펠을 받쳐더니 똑똑 떨어지는 금속성의 빗소리

가 별스러웠다. 도시의 아파트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 떨어지는 천장을 처음 봤다며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다.

비 때문에 두밀리의 아름다운 들로, 물가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복도를 뛰어 다녔다. 그러다 한 아이는 교실 유리 한장을 깨 버렸고, 또 어떤 아이는 벌집을 건드려, 땅벌에게 한방 쏘이기도 했다. 어디서나 아이들의 에너지는 넘쳤다.

교실에서 내다 본 창 밖 풍경은 말로 할수 없이 좋았다. 잣나무의 진한 초록빛으로 가득한 앞산은 물기를 잔뜩 뿜어 올려 금새 산허리에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운동장은 물이 가득 고여 다니기가 불편했다. 돌을 주워다 징검다리를 놓았다. 마을에서 물을 길어왔다. 촛불을 켜고 밥을 지었다. 물 길어오는 수고스러움과 촛불과 랜턴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 두밀분교의 폐교를 실감 할 수 있었다. 그랬다. 누군가 모든 것을 끊어 버렸다. 저녁 식사후 촛불 켜 교실에 모두 모여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빗속

을 마다 않고 모인 가족들인 만큼 적극적이고 흥이 넘쳤다. 그길로 모두 우산을 쓰고 마을회관으로 올라갔다. 형광등 불빛이 환한 마을회관에서 모인 가족들의 소개시간이 있었다. 교육연구회, 학부모회, 또하나의 문화, 신문을 보고 두밀리가 좋아 무작정 찾아 온 가족 등 소속과 사연이 다양했다.

두밀분교를 걱정하는 교육전문가와 마을대표의 얘기순서도 있었다. 그동안의 두밀분교 상황을 필름에 담은 영화가 소개되고, 좋은 만화 영화 3편도 보았다.

무엇보다 판토크로연이 그날 밤 최고의 흥을 돋우었다. 말없이 몸으로 연기하고, 풍선을 길게 붙여 동물, 꽃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는 연기자 모습에 모두 실컷 웃고 박수를 보냈다.

소리 없이 몸짓으로 말하는 판토크로연이 마치 힘센 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두밀분교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다.

밤길을 더듬어 얘기하고 웃으며 다시 학교로 내려 왔다. 웃음 속에서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두밀분교 문제로 모두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 보였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다. 빗속에 날이 밝았다. 새벽 개울물은 불어 있었고 물살도 세었다. 조심스레 내려가 세수하고 발도 적셔 보았다.

물살이 너무 세어 아이들은 수영도 못하고 투망질을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일찌감치 짐을 꾸려 떠나는 가족들도 있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졌다. 마을을 둘러 보았으나 그곳 아이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폐가가 가끔 눈에 띄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해가 구름속을 완전히 빠져나와 두밀리는 활짝 개었다. 우리 다섯가족은 날씨에 보조를 맞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수박까지 챙겨들고 두밀리에서 가장 놀기 좋다는 통통바위까지 올라갔다. 계곡 물은 얼음처럼 차고, 한없이 세차게 흘러 내렸다. 몸이 얼도록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계속된 비로 가족 캠프 일정은 거의 모두 취소되고, 작년 가을 운동회나 음악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두밀분교 폐교에 관한 걱정이나 메시지의 전달은 없었다.

그러나 두밀분교 가족캠프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느꼈을 것이다. 잡초 무성한 운동장, 책상 없는 교실, 먼지 날리는 복도, 쓰다만 분필 조각에서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두밀분교의 이픔을.

자연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두밀리의 분교, 모든이의 관심이 처음처럼 다시 커지길 기다린다.

송주비(강서구 방화동)

학습 여행 보내기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서 우리를 더욱 기운빠지게 하는 것은 캠프에 간다고 했다가 못가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캠프, 환경캠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캠프를 가는 형편이니 숲속학교가 별 매력도 없었나보다. 거기다 가족들의 휴가철이라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끼리 오붓하게 즐겁게 지내고 오자라는 취지아래 계획에는 좀 모자라는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젊고 생기있는 사대생들과 캠프장으로 향했다.

첫째날에 좀 서먹서먹했지만 동아리 활동후 물놀이 시간에 완전히 풀려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그 더위속에서 도움이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물속이 너무 시원해서 새파랗게 질려서 나오면 타올로 닦아주시고, 별명을 부르며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보트도 태워주는 모습을 보며 풍나물 시루속의 학교모습이 연상됐다.

연극반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추는 탈춤을 배운다고 따라하던 조수진 간사는 너무 힘들다고 두손드는데, 1학년 아이도 열심히 2시간 배운 꿩소리도 제법 가락이 익어간다.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다리도 아프지만 끝까지 따라다니며 물어보는 아이들과 채집한 것을 열심히 그림으로 남겼다.

저녁식사 후 추적놀이와 감각놀이를 했는데 집에서 어른들만 부리던 아이들이 어쩔 그렇게 의젓해졌는지 큰 오

빠, 형은 동생들을 챙기고 꼬마들은 꼭 손을 붙잡고 오리걸음도 토끼걸음도 잘 뛰고 그러면서 협동심도 인내심도 길러지는 것 같았다.

전달문대로 따라가면서 귀신도 만나고 보물을 찾고 마지막 코스에서 넓은 잔디밭에 누워서 전갈자리 이야기를 들으며 별자리를 찾아보고 어쩔 어릴적 추억으로 두고두고 아이들 가슴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둘째날은 함께 만드는 민주사회라는 주제에 맞게 선거를 치르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했다.

후보를 등록하고, 로고송을 만들고, 합동연설회 연설문을 쓰고, 선거관리위원들은 벽보판에 후보자 공고를 하고,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도 만들어 붙이고, 선거법 위반사례를 접수받고 감시활동을 했다.

개인유세를 하는데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할 걸 예상했는데 질서있게 열심히 자기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찬조발언까지 하며 어린동생들의 표연기에 열심이었다. 신발장 정리며 주전자에 물떠놓기 등 모범행동도 보였는데 이번 선거를 치른 우리 숲속학교 학생들은 선거과정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어느정도 터득했으리라 자부한다.

밤에 비가 와서 강당에서 아이들과 동아리 발표, 율동, 게임 등 오랜만에 신나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캠프아이와 함께 둘째날을 장식했다.

셋째날, 선생님들의 모범재판 연극을 보고 아이들이 아직은 재판에 대한 경직된 모습과 피고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모의재판을 열 수가 없었는데 이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놀이를 떠들썩하게 하고 찐감자를 먹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과연 토종이구나 싶었다.

폐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우리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부족함에 미련이

남았다.

작년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의젓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전주와 이리를 오가며 기획하고 준비해 온 어려움과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은 이 맛으로 참교육 학부모 일을 하는 것이여!

권숙희(익산시 모현동)

사고 파는 교육위원

제 2기 교육 위원 선출이 각 시도에서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대평가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교육청의 예결산의 심의, 의결 및 감사, 교육감의 선출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며, 학교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위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내 아이의 교육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어 다른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지라 그저 학교에서, 학원에서 요구하면 돈이든 뭐든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교육위원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기가막힌 생각을 갖고 이권을 챙기려는 후보들이 있으니 배우고자라는 학생들의 앞날이 걱정이 될 뿐이다.

이런 후보들에 동조하여 한술 더 뜨는 의원들에게 시의 살림을 맡긴다는 것도 학부모들을 우물하게 만든다. 다행히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밝혀지고, 양심선언을 한 의원들이 있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큰 걱정은 앞으로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양심적이고 깨끗하며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밀려 외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나 다름없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들의 평균연령을 보면 60세가 대부분이다.

젊고 의욕있는 사람들이 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또는 학교현장 관료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는 풍조가 하루 빨리 없어져 시민단체나

교육단체의 경력자들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전도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박인옥(인천 만수동)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⑫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긍정적 나 전달법은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 줘...



지난 번까지는 나 전달법의 원리와 그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아 들일 수 없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등을 사진 찍기 원리에 맞추어 이야기 해 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문제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나 전달법 대화입니다.

나 전달법은 자녀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자존심이나 심정적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자녀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

- 동을 변화 시키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을 높여 주게 되고 책임감을 심어 줍니다.
2.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두 사람 간의 다툼은 서로의 의견, 생각이 달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전달법은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나에게 충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저항이나 반발을 살 염려가 없습니다.
4.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

정하면서 진실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줌에 따라 스스로도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5. 부모 자신도 자기의 표현 능력을 훈련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표현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6.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7. 자녀는 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마음씨와 상대방 입장에 대해 배려 해 주는 따뜻한 품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나 전달법이 언제나 자녀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녀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고마운 행위를 했을 때 이럴 때도 기쁨이나

고마움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 나 전달법 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이나 격려를 받으면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칭찬 받은 행위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긍정적 나 전달법은 자녀의 행동을 칭찬, 격려를 해 줌으로써 자녀의 좋은 행동을 강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생 딸 아이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딸 : 엄마, 나 방과 후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랑 서점에 가기로 했거든요. 7시까지는 들어갈게요.

엄마 : 응, 그러니? 전화 해 알려 주서 고맙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기다렸다 같이 저녁 먹을테니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부모들은 흔히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책은 잘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늘

부정적인 표현이 많게 됩니다. 이러면 부모 자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기 힘들겠지요.

나 전달법은 또한 예방적 대화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의 바라는 바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령, 국민학교 1년짜리 딸아이는 매일 저녁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집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 이따 손님이 오실 텐데 피아노 연습을 오늘 하루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시끄러우면 실례가 되거든.

즉 미리 부모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알려 주어 자녀 스스로 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적 나 전달법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말썽을 부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정진기자〉

시사용어 알아두시다

환경관리도서

(자료제공 : 환경부·교보문고)

넵비(NIMBY)현상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거주에는 혐오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넵비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 'Not in Back Yard'의 약자이다.

WTO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를 대신해 금년 1월부터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반덤핑 규제, 관세인하 요구 등 법적 권한이 주어져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마니너스옴선제
건축회사가 아파트 구조물만 지어주고 각종 내장재는 입주자가 선택, 직접 구입해 장식하는 제도.

아파트 입주 후 내장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뜯어고치는 폐단을 없애고 물자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KEDO
북미 제네바 회담 타결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을 약속함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경수로 건설 비용부담 비율과 조건 등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도 서 명	저 자	도 서 명	저 자
가정쓰레기이야기	김남천외	지구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	베네데트
곰순이네 환경일기	이수경	하나뿐인 지구	신영식
늘 푸른 지구를 꿈꾸며	최석진외	환경과 친해지는 50가지 이야기	모리즈니 아키히로
모래무지와 메뚜기	조상기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교실	박성규
사랑해요 지구아저씨	장원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상식 100가지	구자건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두산그룹환경위원회	아름다운 환경을 돌려주세요	김영웅
시민을 위한 환경교실	이경재외	그린피스	마이클 브라운
시민을 위한 환경이야기	신현국	2분간의 녹색운동	M 램
어린이가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존 자보나	재미있는 환경탐구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들의 지구	조성선	걱정마 지구아	김소천
우리들은 환경파수꾼	김용근	백두산의 우리꽃	김태정
지구야 힘내	스티븐 크롤	환경콜롬보	우리누리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지구를 위한 모임	어린이 생태학	최형진
지구는 우리들의 집	이창혁	지구야 난 네가 좋아	김종상의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



값 4,200원

.....
손준익 창작동화집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동문학가 중의 한 사람인 손준익의 창작동화집입니다. 개구리 점박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운전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를 비롯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꽃씨와 봄』 등 모두 12편의 동화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연의 품 속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학부모, 자녀 위한 9월 행사 안내

알림

동북부 지회 창립 총회
·일시: 9월 22일 11:00
·장소: 노원구민회관
·각 지회 임원 및 회원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요 어린이 문화기행
·일시: 9월 30일 3:00~5:00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앞 입
구에서 만나요)
·대상: 문화기행에 관심있는 가
족 누구나(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준비물: 필기도구

**강화도 자연, 역사캠프 후속모
임**

·일시: 9월 23일 3:00~5:00
·장소: 보라매공원 청소년 회관
·내용: 캠프 VTR상영, 강화도
소개, 캠프활동 소개,
담임선생님과 대화의 시
간 등

강서남부지회
일본어 기초반 강좌
·일시: 9월 29일~12월 15일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등록: 9월25일까지 선착순15명
·회비: 4만원
·문의: 634-6508

**학교운영위원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발표: 신효종)**

·일시: 9월 21일 10:30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방법: 학부모와의 토론
·문의: 634-6508

전주지회
바른언론을 위한 모니터교실
·일시: 9월 26일~11월 7일
·장소: 성폭력 상담소 강의실
(경원동)
·회비: 3만원
·문의: (0652) 231-6242

창립6주년기념 가족 동반대회
·일시: 9월 23일 2:00
·장소: 무악산

월례회

청주시지회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청주시
민모임 창립대회
·일시: 9월 20일 6:00
·장소: YWCA 강당

인천지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세미나(학교
운영위원회, 종합생활기록부,
국민학교 5세 입학)
·일시: 9월 25일 10:00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032) 525-8342

대구지부
부모역할 훈련
·일시: 9월 13일 10:00
·장소: 최정숙씨 대
·문의: (053) 782-2143

마창지회
월례회

·일시: 9월 21일 2:00
·장소: 회원2동 사무실
·문의: (0551) 45-0341

여천지회
대중가요와 민중가요의 이해(강
사: 최영석)
·일시: 9월 14일
·문의: (0662) 84-5116

중서부지회
6주년 기념 신구회원 만남의 날
·일시: 9월18일(월) 오전10시
·장소: 당산동 사무실
·문의: 306-5003, 634-6508

엄마가 배우는 아동미술
·일시: 9월26일 1:00~3:00
·주최: 4주 연속강연
·장소: 신촌 전교조 중서부지회
사무실
·강사: 이희순
·문의: 306-5003, 634-6508

교육기행, 참교육의 현장-풀무학교

죽은 교육이 아닌 살아 있는 교육, 참교육의 현장을 찾아 토론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내용: 풀무학교 견학, 사적지방문, 대안교육 워크샵
일정: 1995년 10월 7~8일(1박2일)
장소: 서초동 구민회관
일시: 10월 7일 오후 2시
준비물: 두끼분 식량, 간단한 침구
참가비: 3만원
문의처: 참교육 시민모임, 전화: 678-9167

학부모신문 구독신청
1년구독료: 일만원
신청 전화: (02) 675-9068
지 로: 7605806
체 신 부: 013185-0042323

건전비디오 대여
가 입 비: 일만원
대여기간: 일주일
대 여 료: 1개당 천원
문 의: 02-634-6508

마창지회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 2동 670-8
전화번호: (0551) 45-0341

참교육 학부모회 6주년 기념 만남의 자리

- 일시: 9월 28일(목) 10시~3시
- 장소: 종로성당 3층 대강당
- 내용: 1. 창립 6주년 기념 강연
·강사: 윤구병교수
·주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그 대안
(대안교육과 실험학교를 중심으로)
·시간: 10시30분~12시(12시~12시30분 질의 응답)
- 2. 신구회원 간담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상: 학부모회 회원 누구나
·시간: 1시~3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
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생애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한강에서 김현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하는 책 해 하노 한 교실 어린이
- 29 통일은 참 없다 동시 · 동화
-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남이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6 민요기행 신경림
- 41 나뭇잎 교실 윤재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현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짙어 우리 엮기 배워보세 신장석

81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창작회

- ▶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 62 끈질기게 물고 놓아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피고난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약학이야기 달력들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 3 4 5 일제강점기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배
- 50 홍이로온 단군 여흥 배후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성
- 58 59 60 소년 독립군 우왕이 1·2·3 강경민
- 68 열세구 국악이야기 풀이보세 건태균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준경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준경
- ▶ 인생이야기
- 7 전대일 위기철
- 33 윤동주 정진규
- 49 신세호 김서정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 창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와 여우아 뛰 하니 김 목
-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산나는 교실 윤재규
- 14 비보와 비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발코미 이상권
- 20 허름나라 허름왕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할 박상규
- 23 커다란 종신 장수 아저씨 유재홍 · 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최초의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7 아기 장수 조호상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30 섬마을 아이들 신승재
- 32 아이마루 호텔이 윤재규
- 37 어려서부터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적다고 할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종 이재복
- 54 김철지의 매주종 이재복
- 55 사장이 된 불행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허수아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뽕자 1·2 오봉옥
- 69 느림을 아이들 일길래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5 제비 제비 철도제비 김준배
- 76 천둥이와 검둥이 이오덕 · 권정생 외
- 77 백두산 산신과 매산이 이야기 동배

● 새로나온 책 산하어린이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펴여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치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 · 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창작회 글 / 최미숙 그림 / 값 4,000원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TEL 392-7641 FAX 313-2582